

폭염·폭우에 여름배추값 ‘폭등’… 가을배추도 ‘비상’

배추 1포기 9337원 전년비 69.5% ↑
여름배추 생산 10% 이상 감소 전망
늦더위에 가을·겨울배추 생육 ‘위기’
모종 가격도 올라 농민 시름 깊어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여름배추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이례적인 늦더위로 인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작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늦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면 가을·겨울배추 생육에 문제가 생겨 배춧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9337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9.49%, 평년과 비교해 32.65% 올랐다. 배추 1포기 가격이 5542원이었던 지난 7월 말과 비교하면 68.48%, 6455원 이었던 8월 말과 비교하면 44.65% 상승했다. 배추 가격이 4000원 미만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고 추석 연휴 바로 전날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작황 부진에 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 한 대형마트에 배추가 진열돼 있는 모습.

인 지난 13일 8002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16.68%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데에는 지난여름 발생한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로 평균 섭씨 15~20도가 생육에 가장 알맞은 온도다. 또 씨를 뿌린 후 50~90일을 키워

야 하는데, 올여름에는 이상기후 탓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출하량이 급감했다. 실제 강원도 고령(高冷)지 여름 배추 수확량은 6~8%가량 감소했으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여름배추 생산량은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의 기후변화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태백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021년 14.6도에서 △2051년 16.9도 △2071년 18.4도 △2091년 20.4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고랭지 재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업진흥청은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랭지 농업이 가능한 곳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로 세균·바이러스성 병해가 생기는 규모와 빈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2050년 고랭지배추 재배 적지가 눈에 띄게 줄고 2090년에는 완전히 사라져 더이상 고랭지에서 생산한 여름배추를 맞볼 수 없을지도 모른

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가을·겨울 배추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9월에도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배추 생육에 문제가 생기는 등 가을·겨울배추 농사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기준 전국 대비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16%, 겨울배추 재배 면적의 62~65%를 차지하고 있는 겨울배추 주산지 해남군은 이상 기후로 인한 배추 생육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늦더위로 인해 가을배추 아주심기(정식)를 마치고도 배추모종이 고사하면서 15~20% 이상 보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빠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심은 모종이 폭염에 말라 죽고 이어심기를 한 것조차 강한 햇볕에 타 버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말부터 9월 초에 모종을 심어 9월 중순 경에 정식을 마치는 가을·겨울 배추의 경우 현재 파종이 거의 끝난 상태지만, 가을에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 생육에 어려움을 겪어 예년보다 보식이 훨씬 많이 이뤄

졌다.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후 보식은 어려워 이제는 앞으로의 날씨에 작황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배추 모종 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이상 올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어 주말이 지나면 배추 생육에 적절한 환경이 갖춰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꾸준히 생육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름배추 생산량이 감소해 배추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폭염·가뭄이 지속돼 보식까지 마친 가을·겨울 배추 생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반복되는 배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면적으로 과잉생산을 막아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추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프랑스 아웃도어 ‘살로몬’ 오픈
광주신세계는 신관 지하 1층에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 매장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살로몬은 1947년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안시에서 시작된 아웃도어 브랜드로, 프리미엄 신발부터 의류, 스키 등 겨울 스포츠 장비까지 우수한 성능을 갖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살로몬은 오는 22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30만 원 이상 구매 시 스포츠 타올, 서바이벌 블랭킷, 반다나 중 하나를 선착순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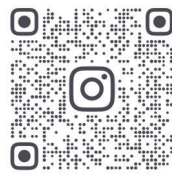
광주신세계 제공



@jnlibo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libo.com



지난달 수출 광주 2.7% 감소·전남 7.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12억500만불 흑자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4년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1% 감소한 12억3100만불, 수입은 2.7% 감소한 6억300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2800만불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9.0%)·기계류(25.7%)·타이어

(0.1%)가 증가했고, 반도체(53.3%)·가전제품(13.1%)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20.7%)·기계류(1.8%)·화공품(20.8%)이 증가했고, 반도체(0.5%)·가전제품(4.0%)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한 40억2700만불, 수입은 6.4% 감소한 34억5000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7700만불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465.4%)·철강제품(0.3%)이 증가했고, 석유제품(14.6%)·화공품(12.9%)·기계류

(34.8%)는 감소했다. 수입은 석유제품(8.1%)·화공품(19.3%)이 증가했고, 원유(5.5%)·석탄(13.9%)·철광(21.7%)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52억5800만불, 수입은 5.9% 감소한 40억5300만불, 무역수지는 12억5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2.1% 증가했고, 수입은 2.5% 증가해 무역수지는 97억25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최권범 기자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 가을 이벤트

호텔 조식·룸업그레이드 등 마련

신안군 자은도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가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해 고객맞이에 나선다.

19일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 따르면 ‘Fall in C-ONE 패키지’는 백길해변의 가을 정취와 씨원아일랜드의 폭포를 더한 상품이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뿐만 아니라 조식 2인과 위

터파크 2인이 포함된 프로모션이다. 호텔식 조식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씨원아일랜드에서는 11월 30일까지 한정수량에 한해 예약 및 투숙객을 대상으로 ‘룸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간내 주중(일~목)에 한해 실시하며, 대상 타입은 호텔 슈페리어 패밀리 예약시 디럭스패밀리로 업그레이드, 리조트는 아일랜드패밀리 클린형 예약시 오션스위트 패밀리클린형으로 한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씨원아일랜드와 자음이 같은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마련했다. 고객의 성과 이름에 ‘S’와 ‘O’가 모두 들어가는 고객에게 식음 20% 할인과 워터파크 4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신안에서는 각종 축제가 함께 열린다. 지난 11일부터 2024 섬 맨드라미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제6회 섬 왕새우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1-988-8888)와 홈페이지(www.class-one.c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국 시간 19일, 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까지 시사했다. 금리인하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원자재 시장 등 거의 모든 자산시장의 가장 큰 호재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양적완화, 즉 돈을 시장에 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무조건 호재로만 받

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경제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이다. 물가지수가 내려가거나 안정되고 동시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린다.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불황이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연준도 이날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을 시사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깊어졌던 사례는 다수가 존재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했었으나 은행들이 파산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사상 최저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저성장과 불황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장기화됐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이후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해서 극단적인제로 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으나 수 십년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금리인하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황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중견기업이 도산

하게 되면 은행들마저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신뢰의 문제로 이어져 신용경색이 만연되면서 백악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잡아내고 금리의 폭을 결정하는 일은 예술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연준의 금리인하가 끝난 타이밍을 잡았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대로 타이밍을 맞췄다면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실기했다면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할 것이다.